11월의 기도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7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해주심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3.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4.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 고난 가운데 더욱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6. 우리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찾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 아멘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하나님께 맡기라

파키스탄의 성회를 인도할 때 아주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데 파키스탄 정부가 집회 장소를 큰 장소가 아니라 아주 작은 장소로 주시고 마이크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회 첫 날에 마이크도 없이 설교하다 보니 하루 만에 내 목이 꽉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첫날 성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이크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문을 열 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성회 시간이 되어 성회 장소에 갔는데 경찰 두 사람이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 인지라 그때 저는 체포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나라에 갔기 때문에 담담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내게 가까이 오는 두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아하, 나를 체포하러 온 것은 아니구나'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몹시 아픕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좀 해 주시겠습니까?"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목사님, 지금 우리 어머니가 몹시 아픕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들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이슬람교를 믿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병 고치러 온 것을 보니까 이제 저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와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들이 손수 마이크에 전원 스위치를 넣어 주어서 성회 때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 만이 아닙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파키스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파키스탄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우리 집회를 녹화하여 전국에 방영하고 각 신문사에서 우리 집회를 대서특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자 그 때부터 나 혼자 길거리나 호텔 로비에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기도 받으려고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회 기간 동안 약 6천 명의 결신자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 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 금 주 : 디시이엠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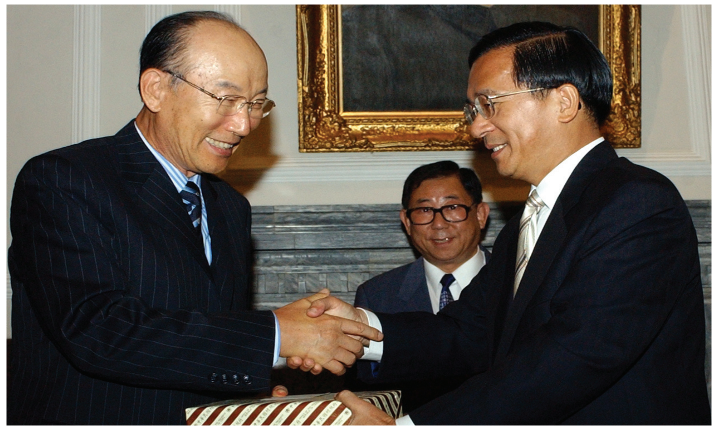
October News Letter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2003년 대만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한 성회'

▲ 대만 타이베이시 대만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이틀간 5만여 명이 참석했다.

▲ 대만의 불교를 섬기는 한 승려는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개종하기도 했다.



▲ 천수이볜 전 총통의 초대로 조용기 목사가 대만 총통부를 방문하여 환담을 나눴다.

중국 남동해안에서 16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만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민간신앙의 신을 모셔놓은 것을 볼 수 있고, 중국문화의 특성으로 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적인 종교 형태를 보이는 국가이다.

민간신앙과 조상숭배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대만의 복음화를 가로막고 있지만 최근 대만의 기독교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 애쓰고 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지난 2003년 9월 17,18일 양일간 대만 타이베이시 대만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한 성회'를 인도하며 대만 복음화를 위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주제로 대만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성회에서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믿음, 열정적인 기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우리를 전인적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전하며 대만의 영적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연인원 5만여 명이 참석했고 4천여 명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신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장이었다.

또한 당시 대만의 총통이었던 천수이볜 총통이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대만 총통부로 초청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양국의 경제협력 및 종교적 관심사에 대해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천수이볜 총통은 "조용기 목사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 국민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세계 기독교계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들었다"며 조용기 목사가 대만을 위해 기도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용기 목사는 한국과 대만 교회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던 천수이볜 총통이 외국의 종교지도자를 초청해 환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현지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총통부 방문으로 대만기독교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후 대만에는 조용기 목사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전면에 나서며 기독교가 날로 부흥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화권 복음화의 통로로 쓰임 받을 대만을 기대해본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우리는 살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불평을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혹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쉽게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열쇠를 내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원망과 불평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1. 원망과 불평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서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는 중에 마실 물이 떨어지자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고 원망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떡이 없다."고 불평했고,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도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원망하며 불평하고 탄식하다가 결국 출애굽한 첫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게 만드는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고 낭패를 당하고 이기면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2. 감사와 찬송

둘째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의 침략을 당했는데, 그에게는 적을 상대할 만한 군대도 없고 무장한 무기도 부실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감사와 찬양이 원수를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대 전쟁사에 없는 희한한 일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군사들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는데 여호사밧 왕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열쇠인 것입니다.

3. 우리의 감사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부귀, 영화, 공명이 자기 목숨을 구해줍니까?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한때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자기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 때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는 것은 다 과거의 일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비록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못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목숨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12)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끝없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선택하지 않습니까? 옷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가구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더구나 내가 살 집 같은 것은 많이 집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자녀로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좋아하시는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삶에 마귀를 끌어들이는 길이고 감사와 찬송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문을 열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셔서 큰 은총과 축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집 : 조용기 목사님의 대륙 별 해외 성회 ③

유럽 (II)

▲ 모스크바 성회에는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듣고자 4만여 명이 참석했다.

▲ 모스크바 성회가 열린 크렘린 궁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

▲ DCEM 조용기 총재 목사가 러시아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고 있는 모습.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오래 전 기독교를 공인하며 서구 문명의 열강으로 자리잡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재 유럽은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럽의 복음화를 위한 영적 전쟁이 어느때 보다 치열하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유럽 땅의 영혼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난 1967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선교에 힘쓰고 있다. 동양의 작고 낯선 국가인 대한민국은 잘 모르더라도 조용기 목사는 이미 그들에게 세계적 복음 전도사로 알려져 있어 많은 영혼들이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유럽에서도 특히 러시아는 조용기 목사의 유럽 선교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이다. 러시아는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마르크스주의의 무신론에 입각한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겼고, 학교교육 마저 반종교적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1992년 6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러시아 모스크바 대성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크렘린 궁에서 열린 기독교 집회였으며 4만여 명이 참석한 놀라운 성회였다. 74년간 공산주의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소망을 갖게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었다.

이 후에도 조용기 목사는 러시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성회 마다 함께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1993년 동러시아 복음성회에는 10만 여명의 성도가 참석했고, 1994년 블라디보스톡 성회에서는 2만 5천여 명이 결신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등 조용기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대단했다.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양육 받은 러시아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회 이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히 신앙을 지키며 조용기 목사를 만나기 위해 직접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하기도 해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땅에 거짓 우상에 대한 신앙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기도로 함께해야 할 때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길 기대한다.